

제 1 장

2025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김용렬*·이석일**·문홍성***·최성천****·김재휘*****·김다현*****

1. 대외 여건과 거시경제 전망

- 1.1.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
- 1.2. 한국 경제 동향과 전망

2. 한국 농업 동향과 전망

- 2.1. 농업 생산 동향과 전망
- 2.2. 농식품 소비 동향과 전망
- 2.3. 농식품 교역 동향과 전망
- 2.4. 농업생산액 동향과 전망

3.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 3.1. 농업경영비 동향과 전망
- 3.2. 농가소득 동향과 전망
- 3.3. 농가인구 동향과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myl@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dltjrdlf2@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moo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sc102140@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raccoon_kjh@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dahyun22@krei.re.kr

요약

1) 대외 여건과 거시경제 전망

-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정책 방향 전환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 및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으로 인해 전년 대비 0.2%p 감소한 2.5%로 전망된다.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나,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이 제약되어 2.1~2.2%로 추정된다.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희석되어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나타내나, 미국 통상정책 전환, 주력업종 경쟁 심화 등의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성장폭이 제한됨에 따라 1.8~1.9%로 전망된다.
 - 2025년 국제 유가는 원유 생산 증가세가 원유 수요 증가세를 상회하여 전년 대비 9.7%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의 흐름 반영, 미국 고용 호조, 트럼프 트레이드 등의 영향으로 달러 강세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환율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 한국 농업 동향과 전망

- 2024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60.1조 원으로 추정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36.2조 원, 축산업은 1.5% 감소한 23.9조 원으로 추정된다. 2025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60.1조 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평년 대비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0.7%, 평년 대비 4.2% 증가한 24.0조 원으로 전망된다.
- 2025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0.6% 증가하고, 수입액은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적자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할당관세 및 사료용 곡물 수입의 기저효과, 내수 소비 회복 등으로 농식품 수입량이 증가하고, 농식품 수출액은 수출업체의 판로 확보 노력과 정부의 수출 확대 지원 및 서구권 수출 시장의 확대, K-Food 인기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2025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2% 줄어든 150.0만 ha로 전망된다. 2025년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1.53ha이고,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74.9a로 전년 대비 1.9%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 재배면적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0.5% 감소한 158.5만 ha로 전망된다.
- 2025년 가축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1억 9,970만 마리로 전망된다. 송아지 입식 감소 영향으로 우제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1% 감소하고, 육용계, 오리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여 가금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4% 증가할 전망이다.

3)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 2025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6% 증가하여 54.3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3.1백만 원으로 전망된다.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은 전년 대비 각각 2.3%,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농가인구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200.2만 명, 농가호수는 0.3% 감소한 98.0만 호가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소폭 증가세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한 52.9%로 전망되며,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으로 감소폭이 완화되어 전년 대비 0.3% 감소한 149.4만 명이 될 전망이다.

1.1.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¹⁾

1.1.1. 세계와 주요국 경제성장률

-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제조업 부문의 느린 회복세로 2023년보다 0.2%p 낮은 2.7%로 추정된다. 다만, 주요국의 서비스업 호조,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 기준금리 인하 등이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4년에 이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나, 미국의 정책 방향 전환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 및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으로 인해 2024년 추정치보다 0.2%p 낮은 2.5%로 전망된다.
- (미국) 2025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내수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나,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관련 불확실성 확대와 고용둔화 등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성장률이 하락하여 2024년 추정치보다 0.8%p 낮은 1.9%로 전망된다.
- (유로존) 2025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둔화 지속, 통화긴축 완화로 2024년 추정치보다 0.2%p 높은 0.9%로 전망된다. 다만, 제조업의 더딘 회복세와 유럽 내 정치적 불확실성, 대외적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국제금융센터 2025년 국제원유시장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년 세계경제 전망」,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hort-Term Energy Outlook」,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Global Executive Summary」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세계 경제성장률과 환율은 S&P Global의 추정 및 전망치를 기준으로 작성함.

- (중국) 202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부동산과 내수 침체 장기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EU와의 무역 갈등 가능성으로 2024년 추정치보다 0.8%p 낮은 4.2%로 전망된다. 다만, 무역규제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노력에 따라 회복양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 (일본) 2025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고물가로 인한 소비 제약과 엔저 효과 약화에 따른 수출 둔화 등으로 회복이 다소 지체되나, 실질임금 상승과 기업실적 호조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강화되어 2024년 추정치보다 1.1%p 높은 1.0%로 전망된다.

표 1-11 세계 경제성장률 동향과 전망

단위: %, 실질 GDP

구분	2022 (S&P)	2023 (S&P)	2024(추정) ¹⁾			2025(전망) ¹⁾		
			IMF	WB	S&P	IMF	WB	S&P
전 세계	3.2	2.9	3.2	2.6	2.7	3.2	2.7	2.5
선진국	2.9	1.8	1.8	1.5	1.8	1.8	1.7	1.5
미국	2.5	2.9	2.8	2.5	2.7	2.2	1.8	1.9
유로존	3.6	0.5	0.8	0.7	0.7	1.2	1.4	0.9
일본	0.9	1.5	0.3	0.7	-0.1	1.1	1.0	1.0
신흥국&개발도상국 ²⁾	3.7	4.2	4.2	4.0	4.1	4.2	4.0	3.9
아시아 ³⁾	3.2	4.6	5.3	4.8	4.3	5.0	4.2	3.9
중국	3.0	5.2	4.8	4.8	5.0	4.5	4.1	4.2
중남미 ⁴⁾	4.1	2.3	2.1	1.8	2.0	2.5	2.7	2.1
중동&북아프리카	5.7	1.3	2.1	2.8	1.1	4.0	4.2	3.1
아프리카 ⁵⁾	3.8	3.3	3.6	3.5	3.5	4.2	3.9	4.2

주 1) IMF는 2024년 10월, WB는 2024년 6월, S&P는 2024년 12월 추정 및 전망치임.

2) Emerging Market과 Developing Economics 기준임.

3) IMF는 Emerging과 Developing Asia, WB는 East Asia와 Pacific 기준임.

4) Latin America와 Caribbean 기준이며, S&P는 베네수엘라 제외임.

5) Sub-Saharan Africa 기준임.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4), World Bank(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4),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 December 2024)

1.1.2. 국제유가 및 환율

가. 국제유가

- 2024년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과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세 둔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 원유 수요 약세가 유가 하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2023년보다 1.4% 하락한 배럴당 76.51달러(EIA의 WTI 기준)로 추정된다.
 - OPEC+ 감산 연장,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심화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국 등 비OPEC+ 생산 호조 등으로 양호한 원유 수급이 이어졌다.
- 2025년 국제유가는 원유 생산 증가세가 원유 수요 증가세를 상회하여 2024년보다 9.7% 하락한 배럴당 69.12달러로 전망된다.
 - (원유 공급) OPEC+의 감산 완화와 비OPEC+의 공급 증가가 맞물려 원유 공급은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 (원유 수요) 세계 원유 수요 증가율은 팬데믹 이전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인도와 중국 등 신흥국들이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 국제 원유 가격 동향과 전망

단위: 달러/배럴

기관	구분	2023	2024	2025(전망) ¹⁾				
				1/4	2/4	3/4	4/4	연간
EIA	WTI	77.58	76.51	69.67	69.83	69.50	67.50	69.12
	BRENT	82.41	80.49	74.00	74.33	74.00	72.00	73.58
S&P	WTI	77.62	76.37	67.87	67.12	65.34	63.17	65.88
	BRENT	82.50	80.49	73.50	73.00	71.67	69.33	71.88

주 1) 2024년 12월 전망치임.

자료: 미국 에너지관리청(EIA),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나. 환율

- 2024년 달러화는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 엔화 강세,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약세를 유지하였으나, 하반기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로 국채금리 상승,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 확대로 강세를 보였다.

- 2025년 달러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으로 강달러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정책 강도조절, 추가 금리인하 단행 등으로 강달러가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유로화는 유럽 내 정치적 불확실성, 무역 긴장,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의 영향으로 미국 달러 대비 약세로 전망된다.
 - 위안화는 중국의 경기 부진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에 유리한 추가 관세와 수익률 차이가 확대되면서 하락 압력이 가해져 약세로 예상된다.
 - 엔화는 일본은행(BOJ)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해 달러화 대비 강세가 전망된다.

| 표 1-3 | 환율 동향과 전망

구분	2022	2023	2024	2025(전망) ¹⁾
달러/유로	1.05	1.08	1.08	1.04
위안/달러	6.73	7.08	7.19	7.42
엔/달러	131.38	140.47	151.28	143.86

주 1) 2024년 12월 전망치임.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 December 2024)

1.2. 한국 경제 동향과 전망²⁾

1.2.1. 2024년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2024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나,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이 제약되어 2.1~2.2%로 추정된다.
 -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가 감소하였으나, 내구재가 신차효과 등으로

2)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25년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산업연구원 2025년 경제·산업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년 세계경제 전망」, 「한국무역협회 2024년 수출입 평가 및 2025년 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환율은 S&P Global의 추정 및 전망치를 기준으로 작성함.

반등하고 의료, 운수를 중심으로 서비스소비도 늘어남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되어 1.2%로 추정된다.

-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상당폭 증가하였으며, 반도체 및 첨단공정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어 1.3~1.5%로 추정된다.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의 높은 연구개발투자가 지속되었으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약화된 0.6~0.7%로 추정된다.
-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토목 건물은 증가하였으나,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누적된 수주 감소로 부진이 지속되어 -1.5~-1.3%로 추정된다.

표 1-4 | 주요 경제 지표 동향¹⁾

단위: %(전년 대비 변화율)

구분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건설투자
한국은행	2.2	1.2	1.5	0.7	-1.3
기획재정부	2.1	1.2	1.3	0.6	-1.5

주 1) 한국은행은 2024년 11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 추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 (물가)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상품물가를 중심으로 낮은 상승세가 유지되어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과일 생산량 감소, 일부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높았으나 이후 둔화되어 전년 대비 5.9%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농림수산물 및 공산품과 폐수처리 가격 등이 상승하여 전년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5 | 물가 변화 추이¹⁾

단위: %(전년 대비 변화율)

구분	2022	2023	2024				
			1/4	2/4	3/4	4/4	연간
소비자	5.1	3.6	3.0	2.7	2.1	1.6	2.3
농축수산물	3.8	3.1	10.4	8.6	3.4	1.6	5.9
생산자 ²⁾	8.4	1.6	1.4	2.2	1.7	1.2	1.6

주 1) 2020=100 기준임.

2) 2024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2024년 11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변화 추이를 분석한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 (고용) 2024년 고용률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증가세가 지속되어 완만한 개선 흐름이 이어져 전년 대비 0.3%p 상승한 62.9%로 추정된다.

표 1-6 | 고용지표 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22	2023	2024				연간
			1/4	2/4	3/4	4/4 ³⁾	
취업자	28,089	28,416	28,060	28,839	28,833	28,834	28,642
실업자	833	787	960	875	641	667	786
고용률 ¹⁾	62.1	62.6	61.6	63.3	63.3	63.3	62.9
실업률 ²⁾	2.9	2.7	3.3	2.9	2.2	2.3	2.7

주 1)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2)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3) 2024년 4/4분기는 2024년 11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변화 추이를 분석한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환율) 2024년 원/달러 환율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미국 대선 결과와 연준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으로 강달러를 보여 2023년보다 4.3% 상승한 1,362원/달러로 나타났다.

표 1-7 | 환율 동향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연간
			1/4	2/4	3/4	4/4	
원/달러	1,291 (12.8) ¹⁾	1,306 (1.2)	1,329 (4.2)	1,371 (4.2)	1,356 (3.3)	1,393 (5.5)	1,362 (4.3)
원/위안	192 (8.1)	184 (-3.8)	185 (-0.9)	189 (0.9)	189 (4.5)	194 (6.1)	189 (2.7)
원/100엔	983 (-5.7)	930 (-5.4)	895 (-7.3)	880 (-8.1)	909 (0.1)	919 (2.8)	901 (-3.2)

주 1) ()는 전년 대비 변화율임.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 December 2024)

- (무역수지) 2024년 무역수지는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강세를 보이며 견조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석연료의 수입액 감소로 안정적 흑자기조로 회복하여 517.7억 달러 흑자로 추정된다.
 - (수출)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AI 수요 증대에 따른 IT 품목 호황기로 수출액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수입) 천연가스·석탄 가격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부문의 수입액이 감소하였으며, 자동차·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수입액도 축소되었다.

| 표 1-8 |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2	2023	2024				연간
			1/4	2/4	3/4	4/4	
수출액(A)	6,835.9 (6.1) ¹⁾	6,322.3 (-7.5)	1,633.8 (8.0)	1,715.1 (10.1)	1,736.6 (10.5)	1,752.1 (4.2)	6,837.6 (8.2)
수입액(B)	7,313.7 (18.9)	6,425.7 (-12.1)	1,550.3 (-10.9)	1,569.8 (-1.4)	1,600.3 (6.2)	1,599.6 (0.9)	6,319.9 (-1.6)
무역수지(A-B)	-477.9	-103.5	83.6	145.3	136.3	152.5	517.7

주 1) ()는 전년 대비 변화율임.
자료: 관세청, 「연간 수출입현황」

1.2.2. 2025년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2025년 경제성장률은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희석되어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나타내나, 미국 통상정책 전환, 주력업종 경쟁 심화 등의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성장폭이 제한됨에 따라 1.8~1.9%로 전망된다.
 -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금융 여건 등 가계 소비 여력의 꾸준한 확충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높은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과 고용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어 1.8~2.0%로 전망된다.
 -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AI 반도체 분야의 견조한 투자수요와 글로벌 통화긴축 완화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여 2.9~3.0%로 전망된다. 다만, 주요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대, 비IT 부문의 더딘 회복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 연구개발투자 지속, 정부 R&D 예산 확충, AI 관련 소프트웨어 투자 증가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어 3.8~3.9%로 전망된다.
-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지속된 건축수주·착공 위축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대규모 공공사업 진척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어 -1.3%로 전망된다.
- (물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유가 하락은 물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1.8~1.9%로 전망된다. 다만, 환율·국제유가 변화, 공공요금 조정, 기업 비용상승 압력,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고용) 2025년 고용률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업황부진에 따른 제조업과 건설업의 노동수요 약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견조한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가 둔화폭을 제한하여 62.8%로 전망된다.
- (경상수지) 2025년 경상수지는 글로벌 AI 서버 투자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통관수입 증가폭이 제약되어 8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된다. 다만,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9 | 한국 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변화율)

구분	2025	
	한국은행 ¹⁾	기획재정부 ²⁾
경제성장률	1.9	1.8
민간소비	2.0	1.8
설비투자	3.0	2.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9	3.8
건설투자	-1.3	-1.3
소비자물가상승률	1.9	1.8
고용률(%)	62.8	62.8
경상수지(억 달러)	800	800

주 1) 한국은행은 2024년 11월 전망치임.

주 2)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 (환율) 2025년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의 흐름 반영, 미국 고용 호조, 트럼프 트레이드 등의 영향으로 강달러가 예상되어 2024년보다 2.1% 상승한 1,391원/달러로 전망된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환율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표 1-10 환율 전망¹⁾

단위: %(전년 대비 변화율)

연도	원/달러	원/위안	원/100엔
2025	1,391 (2.1)	188 (-1.0)	967 (7.4)

주 1) 2024년 12월 전망치임.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 December 2024)

Chapter

2

한국 농업 동향과 전망

2.1. 농업 생산 동향과 전망

2.1.1. 재배업 생산 동향과 전망

- (2024년 동향) 2024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150.4만 ha로 추정된다.
 -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53ha이며, 농가 1인당 경지면적은 1.5% 증가한 73.5a로 추정된다.
 - 경지이용률은 107.7%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5년 전망) 2025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2% 줄어든 150.0만 ha로 전망된다.
 -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1.53ha이고,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74.9a로 전년 대비 1.9% 증가할 전망이다.
 - 경작가능면적 감소폭이 재배면적 감소폭보다 커 경지이용률은 0.1%p 상승한 107.8%로 전망된다.

| 표 1-11 |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동향과 전망

구분	평년 ¹⁾	2023	2024 (추정)	2025 (전망)	연평균 변화율(%)	
					24/23	25/24
경지면적 ²⁾ (천 ha)	1,547 (1,506)	1,512 (1,479)	1,504 (1,470)	1,500 (1,467)	-0.6	-0.2
농가호당 경지면적(ha)	1.51	1.51	1.53	1.53	1.1	0.1
농가인구당 경지면적(a)	70.3	72.4	73.5	74.9	1.5	1.9
재배면적(천 ha)	1,615	1,606	1,593	1,585	-0.8	-0.5
경지이용률 ³⁾ (%)	106.3	107.3	107.7	107.8	0.4%p	0.1%p

주 1) 평년은 2019~2023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2) ()는 경작가능면적(천 ha)을 의미함.

3) 경지이용률은 전년도 경작가능면적에 대한 당해 작물재배면적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2024년 동향) 2024년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159.3만 ha로 추정된다.
- (2025년 전망) 식량작물, 채소, 과수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2025년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158.5만 ha로 전망된다.
 -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89.4만 ha로 전년 대비 0.4% 감소할 전망이다.
 - 채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24.5만 ha로 전망된다. 2024년 배추 가격 상승 영향으로 엽채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6% 증가할 전망이다.
 - 근채류 재배면적은 2024년 무, 당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할 전망이다.
 - 조미채소 재배면적은 2024년산 양파 가격 하락과 2024년 급증한 대파 재배면적의 기저 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3.4% 감소할 전망이다.
 - 과채류 재배면적은 2024년 가격 강세로 인해 오이, 토마토, 딸기, 풋고추 등은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고령화 및 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할 전망이다.
 - 품종 전환 및 신규 품종 식재, 고목 갱신 등으로 과수 유목면적은 증가하나, 성목면적은 감소하여 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9% 감소할 전망이다.

표 1-12 | 부류별 재배면적 동향과 전망¹⁾

단위: 천 ha, %

구분	평년 ²⁾	2023	2024 (추정)	2025 (전망)	연평균 변화율	
					24/23	25/24
전체 재배면적	1,615	1,606	1,593	1,585	-0.8	-0.5
식량작물	905	893	897	894	0.4	-0.4
채소	254	245	246	245	0.4	-0.4
엽채류	45	44	46	46	3.6	0.6
근채류	23	24	22	22	-9.3	3.3
조미채소	93	90	91	88	2.1	-3.4
과채류	41	41	41	41	2.0	-0.8
과수	158	157	157	155	-0.4	-0.9

주 1) 통계청의 농산물 부류별 재배면적 작성 기준과 동일하게 작성함.

2) 평년은 2019~2023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1.2. 축산업 생산 동향과 전망

- (2024년 동향) 2024년 가축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1억 9,910만 마리로 추정된다.
 - (우제류) 2023년 가격 약세로 소, 돼지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여 우제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1,480만 마리로 추정된다.
 - (가금류) 2023년 가격 강세로 육용계, 오리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여 가금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억 8,420만 마리로 추정된다.
- (2025년 전망) 2025년 가축 사육 마릿수는 1억 9,970만 마리로 전년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제류)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24년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하나, 소 사육 마릿수는 송아지 입식 감소 영향으로 감소하여 우제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1,470만 마리로 전망된다.
 - (가금류)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소폭 감소하지만 육용계, 오리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여 가금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1억 8,510만 마리로 전망된다.

표 1-13 | 사육 마릿수 동향과 전망

단위: 백만 마리, %

구분	평년 ¹⁾	2023	2024 (추정)	2025 (전망)	연평균 변화율	
					24/23	25/24
총 사육 마릿수	192.3	193.8	199.1	199.7	2.7	0.3
우제류 ²⁾	15.0	15.1	14.8	14.7	-1.6	-1.1
가금류 ³⁾	177.2	178.7	184.2	185.1	3.1	0.4

주 1) 평년은 2019~2023년 질사평균을 의미함.

2) 우제류는 한우, 젓소, 돼지의 합이며, 한우는 당해연도 4분기 자료, 돼지는 연평균 자료를 사용함.

3) 가금류는 육용계, 산란계, 오리의 합이며, 연평균 자료를 사용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2. 농식품 소비 동향과 전망

- (2024년 동향) 소비자의 식문화 변화 등으로 7대 곡물 소비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6대 과일, 수입 열대과일의 소비는 증가하였다.
 - (곡물, 채소) 2024년 곡물 1인당 소비량은 137.2kg으로 추정되며, 5대 채소 1인당 소비량은 작황 부진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과일) 6대 과일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32.6kg으로 추정되나 평년 수치 대비 여전히 낮은 수치로 나타나며, 오렌지와 수입 열대과일은 할당관세 발효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4.3kg으로 추정된다.
 - (육류)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나 닭고기의 경우 23년 소비량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로 소비량이 감소하여 3대 육류 소비량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60.1kg으로 추정된다.
- (2025년 전망) 7대 곡물, 3대 육류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지만, 5대 채소, 6대 과일, 오렌지와 수입 열대과일 소비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곡물, 채소) 7대 곡물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136.6kg으로 전망되나, 5대 채소 1인당 소비량은 작황 회복으로 인한 수급 상황 개선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8.8kg으로 전망된다.
 - (과일) 6대 과일 1인당 소비량은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어 전년보다 5.3% 증가한 34.4kg으로 전망되며, 할당관세와 한·필리핀 FTA 영향에 따른 관세 인하로 인해 오렌

지와 수입 열대과일 1인당 소비량도 7.5% 증가한 15.3kg으로 전망된다. 다만, 환율 강세 지속 여부와 2025년 국내 과일 작황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 (육류) 3대 육류 소비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59.0kg으로 전망된다.

표 1-14 | 농식품 소비 동향과 전망¹⁾

단위: kg/인, %

구분	평년 ²⁾	2023	2024 (추정)	2025 (전망)	연평균 변화율	
					24/23	25/24
7대 곡물 ³⁾	138.2	139.1	137.2	136.6	-1.3	-0.4
5대 채소 ⁴⁾	111.6	109.4	105.4	108.8	-3.7	3.2
6대 과일 ⁵⁾	34.5	31.9	32.6	34.4	2.2	5.3
오렌지와 수입 열대과일 ⁶⁾	13.0	12.7	14.3	15.3	12.8	7.5
3대 육류 ⁶⁾	56.8	60.5	60.1	59.0	-0.6	-1.9

주 1) 1인당 소비량은 총 국내 공급량(국내 생산량+수입량-수출량-재고 변화량)으로부터 도출된 1인당 공급량을 의미함.

2) 평년은 2019~2023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3) 7대 곡물(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은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4) 5대 채소(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는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5) 6대 과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은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6) 오렌지·열대과일 및 3대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3. 농식품 교역 동향과 전망

- (2024년 동향)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365.3억 달러이며, 수출액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 수출의 경우 지난해 이어 케이-푸드(K-Food)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라면, 과자류 등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아세안과 중국, 일본 위주의 수출 시장이 미국·유럽 등으로 확대되어 2024년 수출액은 농식품 한정으로 93.7억 달러, 임산물을 포함하는 경우 97.9억 달러, 면세점 내 외국인 판매 실적 등을 포함하는 경우 99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무역수지적자는 전년 대비 5.8% 감소한 271.6억 달러로 추정된다.
- 2024년 5대 채소와 과일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6.6%, 11.8% 증가하였으나, 7대 곡물 및 5대 축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3.0%, 2.1% 감소하였다. 농식품 수출량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5년 전망)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하며, 수출액은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 무역수지적자는 10.5% 증가한 300.0억 달러로 전망된다.
 - (수입) 강달러 효과 및 수입 재고량 증가 영향으로 축산물 수입량은 감소하나, 채소 및 과일, 곡물의 수입량은 할당관세 및 사료용 곡물 수입의 기저효과, 내수 소비 회복 등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 6.8%,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 2025년 농식품 수출액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예상되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의 판로 확보 노력과 정부의 수출 확대 지원 및 서구권 수출 시장의 확대, K-Food 인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한 94.3억 달러로 전망된다. 또한 임산물 수출액까지 고려하면 농식품 수출액은 98.7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5 | 농식품 무역 동향과 전망¹⁾

단위: 억 달러, 만 톤, %

구분	평년 ²⁾	2023	2024 (추정)	2025 (전망)	연평균 변화율	
					24/23	25/24
수입액(A)	334.0	374.4	365.3	394.3	-2.4	7.9
수입량	3,792	3,794	3,844	4,141	1.3	7.7
7대 곡물 ³⁾	1,717	1,700	1,650	1,666	-3.0	0.9
5대 채소 ⁴⁾	29	32	34	34	6.6	1.1
과일	71	68	77	82	11.8	6.8
6대 과일 ⁵⁾	5	3	3	2	-13.3	-6.7
오렌지·열대과일 ⁶⁾	67	65	74	79	12.9	7.3
5대 축산물 ⁶⁾	123	134	131	126	-2.1	-4.3
수출액(B) ⁷⁾	78.6 (83.2)	86.2 (90.2)	93.7 (97.9)	94.3 (98.7)	8.8 (8.5)	0.6 (0.8)
수출량	339	337	370	402	9.7	8.6
무역수지적자(A-B)	254.4	288.2	271.6	300.0	-5.8	10.5

주 1) 목재류와 산림부산물을 제외한 농식품 무역 자료임.

2) 평년은 2019~2023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3) 7대 곡물(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은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4) 5대 채소(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는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5) 6대 과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은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6) 오렌지·열대과일 및 5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낙농품)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7) ()는 임산물 수출액의 최근 추세 반영 추정치를 포함한 수출액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4. 농업생산액 동향과 전망

- (2024년 동향) 2024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60.1조 원으로 추정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36.2조 원, 축산업은 1.5% 감소한 23.9조 원으로 추정된다.
 - (재배업) 식량작물 생산액은 쌀 생산량의 감소로 전년 대비 4.1% 감소한 10.2조 원으로 추정된다. 채소 생산액은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한 14.6조 원으로 추정된다. 과실 생산액은 2023년산 과실류의 높은 가격과 2024년산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여 7.5조 원으로 추정된다.
 - (축산업) 우제류 생산액은 한육우 도축 마릿수 및 착유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금류 생산액은 육용계, 오리 도축 마릿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5년 전망) 정부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에 따르면, 쌀 산업 개편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양곡표시제 개편을 통한 고품질 품종 및 친환경 쌀 생산 확대,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 확대, 쌀 가공식품 수출 등 신규 수요 창출, 재배면적 감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통한 벼 재배면적이 8만 ha 감축될 경우, 2025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60.1조 원으로 전망된다.
 - (재배업)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평년 대비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식량작물 생산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0.9조 원으로 전망된다. 채소 생산액은 작황 회복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폭이 가격 하락폭보다 작아 전년 대비 4.1% 감소한 14.0조 원으로 전망되나, 평년 대비 기준 13.3%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실 생산액은 사과, 포도, 단감 등 주요 품목의 생산량 증가폭보다 가격 하락폭이 커 전년 대비 1.8% 감소한 7.4조 원으로 전망되나, 평년 대비 기준 37.6% 높은 수준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벼 재배면적 감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식량작물 생산액은 전년 대비 0.8% 감소,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2.4% 감소,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축산업) 축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0.7%, 평년 대비 4.2% 증가한 24.0조 원으로 전망

된다. 우제류 생산액은 한우 도축 마릿수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0.9%, 평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금류 생산액은 육용계 도축 마릿수 증가와 계산 생산성 회복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0.4%, 평년 대비 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6 | 농업 부문 생산액(명목) 동향과 전망

단위: 천억 원, %

구분	평년 ¹⁾	2023	2024 (추정)	2025 (전망)	연평균 변화율		
					24/23	25/평년	25/24
농업 총생산액 ²⁾	558	593	601	601	1.4	7.7	0.1
재배업 ²⁾	324	350	362	361	3.3	11.4	-0.4
식량작물 ²⁾	105	107	102	109	-4.1	2.9	6.2
채소	124	139	146	140	5.3	13.3	-4.1
과실	54	63	75	74	19.2	37.6	-1.8
축산업	231	242	239	240	-1.5	4.2	0.7
우제류 ³⁾	164	162	168	169	3.8	3.1	0.9
가금류 ⁴⁾	58	72	63	63	-11.9	9.5	0.4

주 1) 평년은 2019~2023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2) 2025년 벼 재배면적 감축 고려하지 않을 경우, 농업 생산액 1.3% 감소, 재배업 2.4% 감소, 식량작물 0.8% 감소함.

3) 우제류는 한우, 젓소, 돼지의 합이며, 한우는 당해연도 4분기 자료, 돼지는 연평균 자료를 사용함.

4) 가금류는 육용계, 산란계, 오리의 합이며, 연평균 자료를 사용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Chapter

3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3.1. 농업경영비 동향과 전망

- (2024년 동향) 호당 농업총수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6%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농업경영비도 3.8%씩 증가함에 따라 동기간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비중은 1.7%p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4년에는 채소·과실류 작황 부진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생산액이 증가하여 농업총수입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 농업경영비는 전년 대비 0.7% 하락하여 호당 농업경영비 비중은 전년 대비 3.1%p 하락한 67.6%로 추정된다.
- (2025년 전망) 호당 농업총수입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39.3백만 원으로 나타나나 평년 대비 9.4% 높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호당 농업경영비는 투입재비가 전년 대비 상승하나, 경상재비·사료비 등의 하락으로 농업구입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대비 1.5% 하락한 26.2백만 원으로 전망되며, 2025년 호당 농업경영비 비중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벼 재배면적 감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농업총수입은 전년 대비 1.5% 감소, 농업경영비 1.3% 감소하여 농업경영비 비중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7 | 호당 농업경영비(명목) 동향과 전망

단위: 십만 원, %

구분	평년 ¹⁾	2023	2024 (추정)	2025 (전망)	연평균 변화율		
					24/23	25/평년	25/24
농업총수입 ²⁾	359	379	394	393	3.8	9.4	-0.2
농업경영비 ²⁾	245	268	266	262	-0.7	6.8	-1.5
농업경영비 비중	(69.3)	(70.6)	(67.6)	(66.6)	-3.1%p	-2.7%p	-0.9%p

주 1) 평년은 2019~2023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2) 2025년 벼 재배면적 감축 고려하지 않을 경우, 농업총수입 1.5% 감소, 농업경영비 1.3% 감소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3.2. 농가소득 동향과 전망

- (2024년 동향)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53.0백만 원으로 추정된다.
 -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감소와 농업총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2.8백만 원으로 추정된다.
 - 이전소득은 농업직불금 등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1.8% 증가하여 17.5백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 농외소득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지만, 비경상소득은 2.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5년 전망)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6% 증가하여 54.3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3.1백만 원으로 전망된다.
 - 다만, 2025년 벼 재배면적 감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총수입 감소하나 수입안정보험 등으로 감소폭이 소폭 둔화되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5% 증가,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농업직불금 등의 규모 및 지원 확대로 3.0% 상승한 18.0백만 원으로 전망된다.
 - 농외소득은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경상소득은 전년 대비 2.7%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8 | 호당 농가소득(명목) 동향과 전망

단위: 십만 원, %

구분	평년 ¹⁾	2023	2024 (추정)	2025 (전망)	연평균 변화율		
					24/23	25/평년	25/24
농가소득 ²⁾	463	508	530	543	4.2	17.3	2.6
농업소득 ²⁾	111	111	128	131	14.7	18.5	2.7
농외소득	181	200	202	207	1.2	14.1	2.3
이전소득	148	172	175	180	1.8	22.1	3.0
비경상소득	23	25	24	25	-2.4	8.6	2.7

주 1) 평년은 2019~2023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2) 2025년 비 재배면적 감축 고려하지 않을 경우, 농가소득 1.5% 증가, 농업소득 1.9% 감소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3.3. 농가인구 동향과 전망

- (농가인구) 농가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 208.9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204.5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총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은 총 인구 감소세보다 농가인구의 감소세가 더 커 전년 대비 0.1%p 감소하여 2025년 3.9% 수준으로 전망된다.
- (고령화) 2023년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52.6%로 나타났으며, 이후 소폭 증가세로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52.7%, 52.9%로 추정·전망된다.
- (농가호수) 2023년 농가호수는 99.9만 호이며, 2024년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98.3만 호로 추정되며, 2025년 농가호수는 전년 대비 0.3% 감소하여 98.0만 호 수준으로 전망된다.
- (농림어업취업자수) 2024년 농림어업취업자수는 149.9만 명으로 추정되며, 2025년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으로 감소폭이 완화되어 전년 대비 0.3% 감소한 149.4만 명으로 전망된다.

표 1-19 |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어업취업자 동향과 전망

구분	평년 ¹⁾	2023	2024 (추정)	2025 (전망)	연평균 변화율(%)	
					24/23	25/24
농가호수(만 호)	102.0	99.9	98.3	98.0	-1.6	-0.3
농가인구(만 명)	220.9	208.9	204.5	200.2	-2.1	-2.1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47.7	52.6	52.7	52.9	0.1%p	0.1%p
총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4.3	4.0	4.0	3.9	-0.1%p	-0.1%p
농림어업취업자(만 명)	147.2	151.3	149.9	149.4	-0.9	-0.3

주 1) 평년은 2019~2023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참고 농업부문 전망을 위한 전제

- (모형) 농업부문 중장기 전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2008년 개발하고, 전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한 KREI-KASMO(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을 이용하였다.
 - KREI-KASMO는 국내 농업부문에 한정된 부분균형모형으로 국제시장 및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취급된다. 국내 농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으며, 가격은 수급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 KREI-KASMO의 대상품목 중 감자는 봄, 여름, 가을로 배추와 무는 봄, 여름, 가을, 시설로 구분하였으며, 파는 대파, 쪽파, 낙농품은 음용유, 치즈, 버터, 발효유, 연유, 분유(조제분유, 전지분유, 탈지분유)로 세분하였다.
- (거시지표) 2025 농업부문 전망을 위하여 최근 국내외 전망기관이 발표한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인구 전망치는 통계청의 2022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결과」(2023년 12월)를 이용하였다.
 - 실질 GDP, 소비자물가(CPI), GDP 디플레이터의 2025년 전망치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2024년 11월)를 이용하였다.
 - 국제유가는 EIA의 「Annual Energy Outlook 2024」 자료를 준용하였다.
-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기발효된 FTA를 상품양허(관세율 및 TRQ)에 집중하여 반영하였다. 쌀은 2015년에 관세화를 이행하였으나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량을 제외하고 국내에 도입된 수입쌀은 소량이며 수급에 미치는 수준의 물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수입물량은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재 과실류 일부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식물검역조치는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식물성고기와 배양육으로 구성된 대체육 시장은 국제육류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육은 전통육에 비해 환경 오염물질 발생이 적고, 사료전환효율이 높아 곡물 사용이 현저히 적으며, 가축 전염병 위험에서 벗어나는 등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대체육에 대한 선호도와 유전공학기술 발전 속도의 불확실성이 커 「농업전망 2025」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감축 실적에 따라 농업생산액, 농가소득, 경영비는 변동될 수 있다.